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통명스럽게 내뻐었다. 딱 십 분을 주었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려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양칼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꿩꿩이숙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웅덩그렁하게 비어 버려 망창히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더러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스쳤다.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밀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A]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뿅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북도는 이미 단순한 북도가 아니라 삼팔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나.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퀘셋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귀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북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었다. 아버지는 얼른 북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려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건어쳤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귀였냐고? 글썽 모르지. 기러다 보니 맹탕 헛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 봐두 꿈 같기 두 하구…… 기리고 이제 모르겠어…… 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늙으니까니 암만해두.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원**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학생인 민홍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민홍은 어머니인 철원네로부터 쥐를 잡으라는 성화를 듣는다.

민홍은 철원네가 열고 나간 가게문을 닫기 위해 무심코 한 발을 방문턱에 올리는 순간 흠칫 몸이 굳어졌다. **㉠**그 높, 바로 철원네가 입버릇처럼 너던 그놈이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했다.

- 에유, 어찌 된 애가 응,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까지 뛰어들었다는 애가 그래 그깟 쥐 한 마리를 못 잡는데 서야 말이 되니? 기가 백허서. 이젠 그놈이 새끼까지 치고 아예 놀러갔으려는지 배가 이리 불룩하고 이만하게 늙은 놈이 등허리는 비루가 먹었는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민홍은 입을 조금 벌렸다.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애가.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른 기운 때문에 미세한 오한에 휩싸였다. 녀석은 민홍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느린 동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 녀석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손을 가만히 내려 냉장고 옆에 세워 둔 연탄집게를 들어 올렸다. 이거면 족하다. 민홍은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가서는 민홍의 손아귀에서는 찢든한 땀이 배어 나왔다. 녀석이 버거운 뱃구레를 추스르며 문턱에 오르는 순간을 일격의 시기로 잡았다. 그래 서두를 건 없어. 민홍은 손아귀에서 힘을 빼고는 일부러 딴 데를 쳐다보는 여유를 부렸다.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려고 더 살든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민홍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여!

민홍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허사였다. 녀석의 굵은 동작은 괜히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은 등허리의 털이 벗겨질 만큼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새끼를 뺨 암컷의 빈틈없고 대담한 산술이었으리라. 녀석은 문턱에 오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람쥐보다 더 민첩한 동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홍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빨려 들어가는 꼬리만 실핏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민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망찰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 모르지 맹탕 헛것이 눈에 보였는지두.

아버지의 늘쨍한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민홍은 찬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골목 저편에서 비닐봉지와 함께 다가온 바람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달싹이고 갔다. 민홍은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았다.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싶었다. 불끈 쥐어 본 주먹에는 연탄집게가 알맞춤하게 들어 있었다. 웬지 느껴온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만치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쪽은 맨발이었다.

- 김소진, 「쥐잡기」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했었다. 그 선택은 이념적 당위를 앞세운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선택은 평생 상처로 작용한다. 민홍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면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게 된다.

- ① 감찰 완장의 ‘양갈지게 붙어제치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했던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 ②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부모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 것이겠군.
- ③ ‘깃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민홍이 보게 된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41.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홍’은 ㉠와 관련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 ②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를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 ③ ‘민홍’은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④ ‘민홍’은 ㉠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
 - ⑤ ‘민홍’은 ㉠를 놓친 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하며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4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저벅저벅’은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느낀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아! 아즈머니슈?”

킁킁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가 말을 건다.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르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삽살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준이택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

“수고랄 거 있습니까. 애순 보람 없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저기 가서 자리만 잡히면 곧 편지가 올 거니까 따라가서 편안히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집 살림을 제가 맡아보는 듯한 수작이다.

“그런데 하꼬방*은 꼭 헐라는 건지요?”

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정이라 말을 돌렸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뭘기루 가지구려.”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필준이택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지금 말눈치 보아서는 당장 헐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무슨 도리를 차리자면, 이 사람을 덧들여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녹여 사정**을 하였다.

“혼잣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작자만 나시면 팔아 버릴까 하는데…….”

“글쎄……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

역시 금시로 헐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말눈치 같다.

“하꼬방만 터값 합쳐 십만 원에 사구 술 하나 걸었죠. 그 외에 그릇 나부렁이까지 끼쳐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

동네 집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반의 샅에도 찢절때는 꼴을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헐가로 흥정을 붙여서 저희 동무들에게 넘기는 것이었지마는, 하여간 그런 자국에 소개도 곧 잘 하는 박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꺼낸 것이었다.

“아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걸 십오만이라니 어렵두 없습니다.

게다가 ㉡ **그까짓것 볼들구 앉았어야 세금은 점점 오르구…….**”

세금 노래를 꺼내는 것을 보니, 너 같은 빨갱이도 그런 줄이나 아는구나 하고 필준이택은 **속으로 웃자**니까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

하고 썩 웃는다. 필준이 내외가 걸어붙이고 나서서 하꼬방 하나로 다섯 식구가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고, 저희는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땡땡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제가 사겠다는 말도 실없는 소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인민군에게 끌려갔던 필준은 겨우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비밀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소 하꼬방을 탐내던 박일성 반장 내외가 이를 눈치 채고, 반장택은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필준이택(진숙 어머니)의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다.

“지하실은 어디야?”

이때까지 다다미를 밟는 투박스러운 구둣발자국 소리밖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던 캄캄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앞을 우뚝 막아서며 **그 거센 목소리로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다.

“이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란 말에 남편의 얼굴이 또 떠오르면서 속이 떨렸다.

“마루 밑에 없으면 다다미 밑에라도 봤겠지?”

진숙 어머니는 다시 머리가 어쩔하였다.

‘하누님 맙시사!’

하고 속으로 빌었다. 전신의 기운이 쪽 빠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섰다.

“여보 이리 오슈.”

마루 끝에서 치어다보고 섰는 병정에게 소리를 치고 내무서원이 앞장을 서 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옆의 빈자리를 구둣발로 걷어차며

“여길 열어 봐.”

하고 호령을 한다.

뒤따라 들어온 진숙 어머니가 요를 걷어치우고 **다다미를 들어내**려니까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반장 여편네도 머리맡으로 가서 거든다. 다다미를 들어내고 널판지를 벗긴 뒤에 회중전등을 비춰 보아야 별 수는 없었다. ㉢ **깊이 빠져 머쓱해진 내무서원은** 여전히 잡자코 온돌방을 거쳐 삼조 방으로 **뚜벅 뚜벅 건너**간다.

아이들은 이 법석에도 세상 모르고 곤드라져 숨소리 없이 잔다.

인제는 될 대로 되라고 기진맥진한 진숙 어머니는 등신처럼 떨거니 섰기만 하다가 반장 여편네가

“여보 그래두 어떻게 됐는지 가 봅시다.”

하고 등을 미는 바람에, 온돌방으로 들어서니 벌써 남편의 기어 나오는 허연 그림자가 눈에 힐끗 띈다. ㉣ **진숙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첼그럭…….

수갑을 채우는 소리다. 다음 순간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앞장을 서고 내무서원 병정 반장 여편네…… 아무 소리도 없이 줄달아 나온다. 밖에 나와서도 반장 여편네는 진숙 어머니의 옆을 지날 때 외면을 하였다.

얼이 빠져 섰던 진숙 어머니는 무슨 새 힘이 났는지 주르를 뛰어나가 남편 옆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입이 벌어지지를 않는다. 다만 현관에서 고무신을 바로 놓아 주었다.

㉤ “**아이들하구 잘 있어!**”

내무서원이 문을 열어 주니까 필준이는 멍청하고 얼굴을 돌리며 한마디 던지듯이 하고 나간다.

“안녕히 가세요.”

반장 여편네가 꼬박 인사를 하고 문밖에 나선 진숙 어머니에게는 알은체도 없이 달음질을 쳐서 저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숙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진숙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를 굽뜨려 스러질 때까지 병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떨거니 섰었다. 눈에는 눈물 한 점 스며나지 않았다. 대문도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온 진숙 어머니는 자는 아이들 옆에 쓰러지며 고개를 파묻고 비로소 목이 메여 울음이 복받쳤다. 한 심분은 그대로 인사 정신 없이 울었으리라. 어머니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자 진숙 어머니는 몸을 어떻게 지향할 수가 없는 듯이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나—”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잠이 덜 깨어 떨거니 앉았는 아이들은 혼이 나서 어머니가 미쳤다? 하고 **덜덜 떨고 있다.**

—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

*하꼬방: 관갓집을 뜻하는 일본어.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소설 26-28번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참혹한 전투 장면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위협 받고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다.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비극적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① 하꼬방 값을 흥정하기 위해 ‘언성을 녹여 사정’하는 진숙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인물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인민군 치하에서 ‘땡땡거리고’ 사는 박일성을 보며 ‘속으로 웃’는 진숙 어머니를 통해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필준을 찾는 ‘거센 목소리’가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 장면에서 인물의 삶이 위협 받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④ ‘다다미를 들어내’는 진숙 어머니를 거들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반장 여편네를 통해 부정적인 인간상을 엿볼 수 있군.
- ⑤ 진숙 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공동체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준이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박일성은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준이택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내부서원은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멋쩍어 하면서도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다.
 - ④ ㉣: 진숙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 ⑤ ㉤: 필준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였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 “…….”

“지가 잘못했어요.” /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게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게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 “뒤곁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췌한?” / “야.”

“느 숙모도?” /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던데요?” /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3)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소설 21-23번

“우리 집에?” / “야.”

㉔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로요.” / “니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 “야.”

㉕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젠.” / “…….”

“허,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늑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폄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려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22.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② ㉒: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㉓: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㉔: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㉕: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6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⁴⁾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 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 주도에서는 손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 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 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 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 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밥 많이 먹 는 식도’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 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 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 년 전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명석을 퍼 고 내다 낸 메주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A] 혐의를 평소애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 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 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 았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 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 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깥 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뵈기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 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B] 우익 인사 가족들도 낫 놓고 영영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 게 들려왔다. 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 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면, 군인들이 일주 도로면 율광진 밭에다가 사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엔 엮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멍 살려 달렌 하던 모양입니다.”

“쫄쫄쫄, 운동장에 뱉겨져 널려진 ㉢ 입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면 아마도 가매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

며 말을 씹어뺐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구마 뿔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뿔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요는 이 날 이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 엔 오백 명은 넘은 것 같은디,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썸?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 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 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 란 가정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 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공할 만한 일 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요는 ㉣ 옥 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 썸?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썸?”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 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 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혼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랴쥬. 또 가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해 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줄병 생 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쥬. 견벽 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는 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 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란 말이여. 그러니 일정 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공리이었쥬. 그 런디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하시니 말이여.”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끝이들업수파? 그건 옷대 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 우 리 부락처럼 폐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뺨 돌아가명 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 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파?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 라는 게 틀림없어 마썸.”

- 현기영, 「순이 삼촌」 -

4)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소설 26-28.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움팡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⑤ ㉣: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그건 옷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답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39-42

39	③	40	②	41	④	42	③		
----	---	----	---	----	---	----	---	--	--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26-28

		26	①	27	②	28	②		
--	--	----	---	----	---	----	---	--	--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21-23

		21	②	22	⑤	23	④		
--	--	----	---	----	---	----	---	--	--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26-28

		26	⑤	27	④	28	①		
--	--	----	---	----	---	----	---	--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소설/시나리오 기출 작품 목록

<2018년 3월 학력평가>

- 김소진, '쥐잡기'

<2018년 4월 학력평가>

- 염삼성, '탐내는 하꼬방'

<2018년 7월 학력평가>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018년 10월 학력평가>

- 현기영, '순이삼촌'